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중국자금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‘한국자본시장 설명회’ 개최

- 금융당국은 10월 22일 중국 북경에서 국내 한·중 금융회사 및 관계자 310여명(한국: 90여명, 중국: 220여명)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 및 금융시장 안정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한국 투자 홍보를 실시함.
 - 이처럼 중국 기관투자자를 겨냥한 자본시장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6월 13일 중국 은행감독위원회가 QDII(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) 자격을 부여한 이후 한국투자가 가능해진 것을 계기로 1차 투자 설명회를 갖게 된 것임.
 - 동 행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과 한국 증시의 FTSE 선진국 지수 편입, 외국인 투자가 지원 정책 및 최근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 등을 설명하고,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함.
- 중국의 은행감독위원회(CBRC), 증권감독위원회(CSRC) 주석 및 중국투자공사(CIC)와의 별도 면담을 통해서도 한국계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확보, QFII(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) 추가 승인 등의 협조 방안을 논의함.
 - 최근 중국계 은행이 신규 대출을 축소하는 등 위안화 신용공여 감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현지 차입 의존도가 높은(자금 조달의 30~40% 가량을 차입) 한국계 은행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.
 - 이에 은행감독위원회 리밍캉(Lie Mingkang) 주석은 유동성 문제 등이 없는 경우 외국계 은행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유지, 향후에도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한 한국계 은행이 곤란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함.
- 아울러 이번 면담을 계기로 금융당국 각 수장들간의 핫라인(HOT LINE)을 개설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긴박하게 움직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한·중 공조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.

(「한국 투자시장 홍보 및 한·중 협력 관계 강화,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,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, 10/23)